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차별 경험 예측요인 탐색

Exploring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Using Decision-Making Tree Analysis

송 연 주(Song, Yeon J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factors related to adolescent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using decision-making tree analysis and suggest implication for futures. To do this, analysis was conducted with 5,741 Korea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ho responded to the 2020 Children's and Youth Rights Survey. As a result, first, parental abuse, gender and school level were closely related to the likelihood of predicting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Second,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had much to do with the frequency of discriminatory behavior. Additionally, it turned out that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were associated with socioeconomic status as well as academic achievement.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 and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experiences of discrimination, discriminatory behavior, decision-making tree analysis, adolescents

* 동의대학교 평생교육·청소년상담학과 조교수, 교육학박사

I. 서론

지금까지 청소년을 위한 법안과 정책이 끊임없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감은 OCE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과 현실의 괴리감은 아마도 청소년의 지위와 역할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이 시대적 변화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한 결과일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육성 5개년 계획을 통해 청소년의 동반자적 사회 지위와 주체적 참여 역할이 언명되고 있지만, 청소년은 여전히 보호와 육성의 대상이라는 인식 속에 기성세대가 정해진 원칙과 질서에 순응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즉,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연령, 성별, 지역, 장애 등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김승경, 최정원, 강지명, 2016).

차별(差別)이란 둘 이상의 대상을 특정 기준에 따라 우월을 따져 구별하는 행위로, 여러 대상에 대해 어떤 기준을 두고 그것에 따라 우월과 열등을 가리는 것을 말한다. 차별은 개인이 가진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근거하여 상대를 다르게 처우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에 따라 다수에 속한 사람이 소수의 사람을 구분 지어 나 오는 다른 남으로 배제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한규석, 2013; Levin & Levin, 1982).

차별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등의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는 모든 청소년이 경험할 수 있다. 수능성적이나 대학입시라는 시험 결과가 사회적 신분이 되어 버린 현시대에, 실패는 개인의 노력 부족을 입증하는 자리가 되어 버렸다(천정웅, 2015). COVID-19로 인한 학습 결손은 교육의 격차를 더욱 확대시켰다. 우리 사회에 ‘개천의 용’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엿볼 수 있듯이 학교가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경험의 차이를 완충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가정의 소득이나 주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청소년에게 단순한 물질적 결핍만이 아닌 교육이나 문화적 기회를 비롯하여 생활 전반에 걸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는 성장하는 청소년에게 차별적인 태도를 주입함으로써 나를 차별하는 사회에 맞서 문제를 제기할 겨를도 없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게 만들고 있다(김승경 외, 2016).

이러한 사회적 문제로 인한 불평등까지 가지 않더라도, 청소년에게 차별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대표적 차별로 학업을 들 수 있다. 우수한 학업성취는 우월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보상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시험 성적이 개인의 능력을 드러낸다는 생각은 자신만큼 성취를 얻지 못한 타인을 향한 차별 논리를 제공한다(김술, 김정근, 2021). 또한, 청소년은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 조손가정과 같은 가족 유형이나 성별, 부모의 양육방식과 같은 개인적이지 환경적인 특성에 의해서도 차별받을

수 있는데,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청소년의 삶을 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로 제한하여 가정생활을 학교생활의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면서 차별적 행동을 나타내곤 한다. 예를 들어, 학교 성적을 이웃 친구나 형제들과 비교하거나, 집에서도 공부만을 강요하고, 높은 성적을 받기 위해 소소한 일상의 재미를 포기하게끔 하는 등 청소년의 생활을 학업이나 성적을 기준으로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길은배, 이미리, 2007; 김혜원, 조혜영, 2021).

이로 인해 청소년은 존재 자체로도 존중받고 스스로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가정과 사회로부터 다양한 잣대와 틀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이른바 차별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 차별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질병으로 이어지며(손인서, 김승섭, 2015),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고(박명숙, 임안나, 2023; 송인한, 권세원, 정은혜, 2011; 정영순, 전종철, 2010; 홍성희, 2023), 행복감마저 감소시키는 것으로(김용희, 엄명용, 2018)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 차별피해 경험은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Gee, Walsemann, & Brondolo, 2012) 청소년기 차별 경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차별을 당한, ‘차별피해’ 경험은 다른 편견이나 또 다른 차별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따돌리는 가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심리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차별 가해 행동을 발생시킨다. 즉, 차별피해 경험은 다시 차별을 가하는 행동을 일으키는 위험률이 높은 것이다(김솔, 김명근, 2021; 김혜원, 조혜영, 2021; 박지수, 한운선, 2018; 아영아, 정원철, 2014; 오세현, 강현아, 2018; 차유정, 황의갑, 2017; 천정웅, 2015; 홍기혜, 2019). 이에 청소년의 차별피해를 비롯하여 차별가해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차별 경험을 감소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청소년 차별과 관련하여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부딪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의 차별 경험을 살펴보아야 하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가장 크게 차별을 경험하는 학교라는 제도권 내에서 청소년 차별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청소년의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들은 몇 가지 예측요인과 차별 경험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치고 있어, 차별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분석(Decision Tree Analysis)을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데이터마이닝기법(Data Mining)의 하나로, 선행연구를 토대로 영향요인을 선택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아닌, 통계적인 가정이나 전제 없이 자료 속에서 새로운 예측모형을 만드는 비모수적 기법이다(임희진, 유제민, 2007). 의사결정나무 분석은 통계적 가정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지만, 종속변수를 가장 많이 예측하는 요인부터 순서대로 보여주기에 때문에 최적의 모형을 제시해주게 된다(박소영, 정혜원,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차별 경험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을 발견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요인부터 우선순위를 제시해주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실천적 접근 마련이 가능해지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차별의 개념

차별은 일반적으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된다(김승경 외, 2016). 차별은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고정관념은 특정 범주의 집단에 대해 그 집단 구성원이 나타내는 공통된 특징으로 사회에서 널리 수용되는 인식을 의미하고, 편견은 특정 집단 혹은 특정 범주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을 평가하는 태도로 대체로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보통 특정 대상에 대한 인지적 요인인 고정관념과 감정적 요인인 편견이 특정 집단이나 범주의 사람들을 향해 행동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차별이라고 한다(한규석, 2013).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인한 차별은 부모가 특정 가치관을 주입하거나 아동이 부모의 태도나 가치관을 동일시해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한 사회화 과정을 거쳐서도 형성될 수 있다. 차별의 근거가 되는 요인으로는 성별, 연령, 신체적 특징과 같이 그 특성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고유한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지위, 경제력, 학력 등과 같이 변화 가능한 사회적 요인이 있으나, 보통 이 두 가지 요인이 중첩되어 복합적으로 나타나곤 한다. 이처럼 차별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점차 학력, 경제 상황, 사회적 지위 등과 같은 변화 가능한 사회적 요인조차 세습화되고 대물림되면서, 차별은 더이상 개인의 힘만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굴레가 되어가고 있다(김승경 외, 2016). 이에 청소년의 차별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2. 청소년의 차별 경험

우리 사회는 유교의 영향으로 집단 구성원 간 조화를 추구하는 성향이 짙다. 이처럼 집단의 유지와 존속을 강조하다 보니 개인의 요구나 권리보다 권력이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

는 것을 더 요구해왔다. 이는 조화와 위계에 대한 강조와 존중이라는 특성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는 남성에 대한 우월성 강조, 여성비하와 같은 성차별, 어른이 아이를 무시하는 연령차별 등과 같은 면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엿보게 한다. 바꾸어 말하면 개인의 특성보다 성별, 연령, 위계 등에 따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강조해온 우리 사회는 개인에 대한 존중과 평등보다 차별이라는 태도가 자라날 분위기를 조성해왔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교육열로 발생된 학력 위주의 사회나 장애 및 외모 등 신체적 특징에 대한 차별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문화 가족, 이주 노동자, 중도 입국자 등에 대한 인종차별도 심각해지고 있다. 분명 현대 사회로 오면서 차별 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과거보다 많은 사람에게 인권이 부여되고 있지만, 성별, 학벌, 연령, 지역 등 다양한 범주의 권력 구조 내에서 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

청소년 역시 차별적 환경에 놓여 있다. 이들은 학업성적으로 인한 차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차별 등으로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차별은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고(박명숙, 임안나, 2023; 송인한 외, 2011; 정영순, 전종철, 2010; 홍성희, 2023), 행복감(김용희, 엄명용, 2018)이나 주관적 안녕감(최현주, 박선영, 2015)을 감소시키는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청소년이 가장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차별 영역은 교육이다. 모든 청소년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교육만으로는 평등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기회의 균등은 성립되지 않으며, 이미 교육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김경준, 김희진, 이민희, 김윤나, 2014). 이른바 ‘개천의 용’과 같이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를 이뤄내던 때와는 달리 현재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의해 부가 대물림되면서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조차 변화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우리 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볼 수 있다. COVID-19 이후 더욱 확대된 교육격차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더욱 큰 주의를 요구하고 있기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고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해소하려는 전략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 하겠다.

3. 청소년의 차별 경험 예측요인 고찰

차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은 청소년의 차별피해와 차별가해를 구분하여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차별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자살 생각을 증가시키고(박명숙, 임안나, 2023; 홍성희, 2023), 자존감이나 학교생활 만족도를 낮추며(정은아, 백진아, 2023), 청소년의 정신적 혹은 신체적 질병을 야기하는 것(손인서, 김승섭, 2015)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청소년기 차별피해 경험은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악영향을 미

치게 되어(Gee et al., 2012)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기 차별피해 경험은 주변 환경을 더욱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과도한 투쟁을 유발하게 하며(김승경 외, 2016), 이러한 피해 경험은 차별을 가하는 행동으로도 이어져(김술, 김경근, 2021) 그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에 매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술, 김명근, 2021; 김혜원, 조혜영, 2021; 박지수, 한윤선, 2018; 아영아, 정원철, 2014; 오세현, 강현아, 2018; 차유정, 황의갑, 2017; 천정웅, 2015; 홍기혜, 2019). 우선, 사회학습이론에서는 폭력 피해 과정에서 공격성과 폭력을 학습하여 또 다른 대상에게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하였다. 즉, 차별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피해 행위를 학습하게 됨으로써 다른 상황에서의 차별가해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Akers, Krohn, Lanza-Kaduce, & Radosevich, 1995; Bandura, 1977).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목표달성의 실패, 긍정적 자극의 소멸 또는 제거, 부정적 자극에의 직면이 긴장을 유발하고, 긴장은 다시 부정적 감정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특히 부정적 감정 중에서 분노나 절망감이 비행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감정일 수 있는데, 청소년의 경우 자신이 겪는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비행을 선택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즉, 차별피해나 부모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경험할수록 우울, 불안, 좌절 등의 부정적 감정이 유발되고, 이는 결국 폭력이나 범죄 행동과 같은 차별가해로 이어지게 만든다고 하였다(차유정, 황의갑, 2017).

청소년 차별가해에는 성별, 학년, 학교급 및 학업성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대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차별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김준범, 이진석, 2020; 차유정, 황의갑, 2017; 최홍일, 정윤미, 2020),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른 결과는 다소 논쟁의 여지가 있다(김승경 외, 2016; 김중곤, 2020; 오미옥, 이진향, 2018). 학업성취의 경우, 학업성적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보다 차별가해를 비롯하여 차별피해도 높은 집단에 속할 확률이 높았는데(최홍일, 정윤미, 2020), 이는 높은 성적을 얻기까지 외부의 압박이 심했을 경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감각이 무더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박봉규, 2011).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 역시 차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학대나 방임은 차별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차별가해를 높였으며(김혜원, 조혜영, 2021; 차유정, 황의갑, 2017; Dhont, Roets, & Hiel, 2013), 가정 내 학대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차별가해 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진, 2017). 부모의 존중적 태도는 차별가해를 낮추었으나, 억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방식은 편견 및 차별가해를 증가시켰다(김중곤, 2020).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차별 경험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몇 가지 예측요인과 이들 요인과 차별 경험 간의 관계를 고찰하는 데 그치고 있어,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심도 있게 살펴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통해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해보으로써 차별피해 및 가해가

발생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활용하였다.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는 전국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총 8,623명이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과 중기 청소년의 발달적 특징이 다르다는 것(김균희, 공수연, 2020)에 근거하여 초등학생을 제외하고, 중·고등학생 5,741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2,989명(52.1%), 여학생이 2,752명(47.9%)이었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747명(47.8%), 고등학생이 2,994명(52.2%)이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 중 부모님(보호자)로부터의 학대와 방임, 차별당한 경험, 차별한 경험 및 인구통계학적 변인(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1) 부모학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부모님(보호자)로부터의 학대(신체적 벌과 모욕적인 말)는 총 2문항으로, 최근 1년 동안 받은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신체적 체벌’, ‘부모님(보호자)으로부터의 모욕적인 말(욕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한 번도 없음’, ‘2=일 년에 1~2회 정도’, ‘3=2~3개월에 1~2회 정도’, ‘4=한 달에 1~2회 정도’, ‘5=1주일에 1~2회 이상’)로 측정하게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13으로 나타났다.

(2) 부모방임

부모방임(가정에서의 소홀 여부)은 총 5문항으로, 최근 1년 동안 ‘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

자) 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그런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다',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식사를 못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부모님은 내가 학교에 결석해도 신경 쓰지 않는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한 번도 없음', '2=일 년에 1~2회 정도', '3=2~3개월에 1~2회 정도', '4=한 달에 1~2회 정도', '5=1주일에 1~2회 이상')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로부터 방임을 많이 받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문항('밤늦게까지 부모님(보호자)없는 집에 있었던 적이 있다')을 제외한 4 문항을 최종 사용하였다. 부모방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53이었다.

(3) 차별피해 경험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차별당한 경험을 묻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차별당한 경험은 최근 1년 동안 주위 사람들로부터 성별, 공부, 연령, 외모나 신체조건, 가정형편, 고향이나 사는 지역, 종교, 부모님 생존 여부, 장애의 이유로 차별을 얼마나 자주 당했는지 묻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차별피해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한 번도 없음', '2=일 년에 1~2회 정도', '3=2~3개월에 1~2회 정도', '4=한 달에 1~2회 정도', '5=1주일에 1~2회 이상')로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 1년 동안의 차별당한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차별피해 경험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90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5,741명 중에서 결측치 57명(1%)을 제외한 2,954명(52%)가 차별당한 경험의 모든 문항에서 '1=한 번도 없음'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응답이 다소 치우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별당한 경험 여부에 따라 '1=경험 없음', '2=경험 있음'으로 차별피해 경험을 재코딩하였다.

(4) 차별가해 경험

본 연구에서 차별가해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차별한 경험을 묻는 10문항을 사용하였다. 차별한 경험을 묻는 문항은 최근 1년 동안 성별, 공부, 연령, 외모나 신체조건, 가정형편, 고향, 종교, 장애 등의 이유로 주위 사람을 얼마나 자주 차별했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한 번도 없음', '2=일 년에 1~2회 정도', '3=2~3개월에 1~2회 정도', '4=한 달에 1~2회 정도', '5=1주일에 1~2회 이상')로 이루어져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최근 1년 동안 차별 행동을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Cronbach's α)는 .876이었다. 전체 응답자 5,741명 중에서 결측치 48명(0.8%)을 제외한 5,693명 중 4,511명(78.6%)이 차별한 경험을 묻는 모든 문항에서 '1=한 번도 없음'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차별한 경험 여부에 따라 차별가해 경험 응답은 '1=경험 없음', '2=경험 있음'으로 재코딩하였다.

(5) 인구통계학적 변인

청소년의 차별 경험 분석과정에서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성별(남/여), 학교급(중학교/고등학교), 학년(중학교 4-6/고등학교 7-9), 지역규모(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가족유형(양부모가정/한부모가정/조손가정/기타), 학업성적(상/중/하), 가정의 경제적 수준(상/중/하)을 사용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관계와 패턴, 규칙을 비롯하여 숨겨진 지식과 예상하지 못한 패턴 및 규칙을 탐색하고 추출하여 모형화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의사결정규칙(decision rule)을 나무구조로 도표화하여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방법을 뜻한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node로 이루어진 나무 모양으로 구성되어 자료를 잘 분리할 수 있는 분리 변수를 찾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분석에서의 모형은 더이상 마디가 효율적으로 분리되지 않을 때 형성되는데, 이때 정지규칙을 지정하여 마지막 진행된 마디가 끝마디가 되도록 하고, 가지치기를 통해 형성된 의사결정나무에서 적절하지 않은 마디를 제거함으로써 최종 예측모형을 선택하게 된다(오정아, 오해섭, 2018).

이와 같은 의사결정규칙에 따라 나무구조 모형으로 도식화되어 분류와 예측을 수행하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기 위해 다양한 요인이 투입되었을 때 각 요인이 자동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종속변인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예측모형을 자동적으로 산출해주기 때문에(송연주, 강창완, 이정희, 2022),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개입 방안 마련에 매우 적합한 방법일 수 있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χ^2 적합성 검정에 근거한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ion) 방법을 적용하였고, 독립변인의 분리와 병합 기준은 0.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상위노드와 하위노드를 생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상위노드 10과 하위노드 5를 기준으로 하였고, 이익도표와 위험도표를 토대로 모형의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모든 자료는 SPSS 26.0 program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IV. 결과

1.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 예측요인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아무런 예측요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43.8%로 나타났다.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의 차별피해 경험 예측요인이 투입되었을 때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부모학대였고, 다음으로 성별과 학교급 및 부모방임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지각하는 경우 차별피해 경험은 74.2%(노드3)로 증가하였고, 여학생(81.7%)이 남학생(65.5%)보다 차별피해 경험이 더 높게 증가하였다(노드8). 또한, 중학교(76.6%)에 비해 고등학교(87.9%)에서 차별피해 경험이 증가하였다(노드16).

한편, 부모로부터 학대 즉, 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을 듣지 않았다고 지각하는 청소년의 경우, 차별피해 경험은 39.5%로 감소하였는데(노드2), 여학생은 48.9%를 차지하는 반면, 남학생은 31.5%(노드7)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때 부모로부터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 즉 부모로부터 방임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라면 차별피해 경험이 53.5% 증가하는 것(노드15)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부모로부터 신체적 벌을 많이 받거나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고 지각할수록 차별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여학생이거나 고등학생의 경우 더 많은 차별피해를 겪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학생의 경우,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지각하게 되면 차별피해를 많이 겪게 되는데, 이러한 경험은 남학생보다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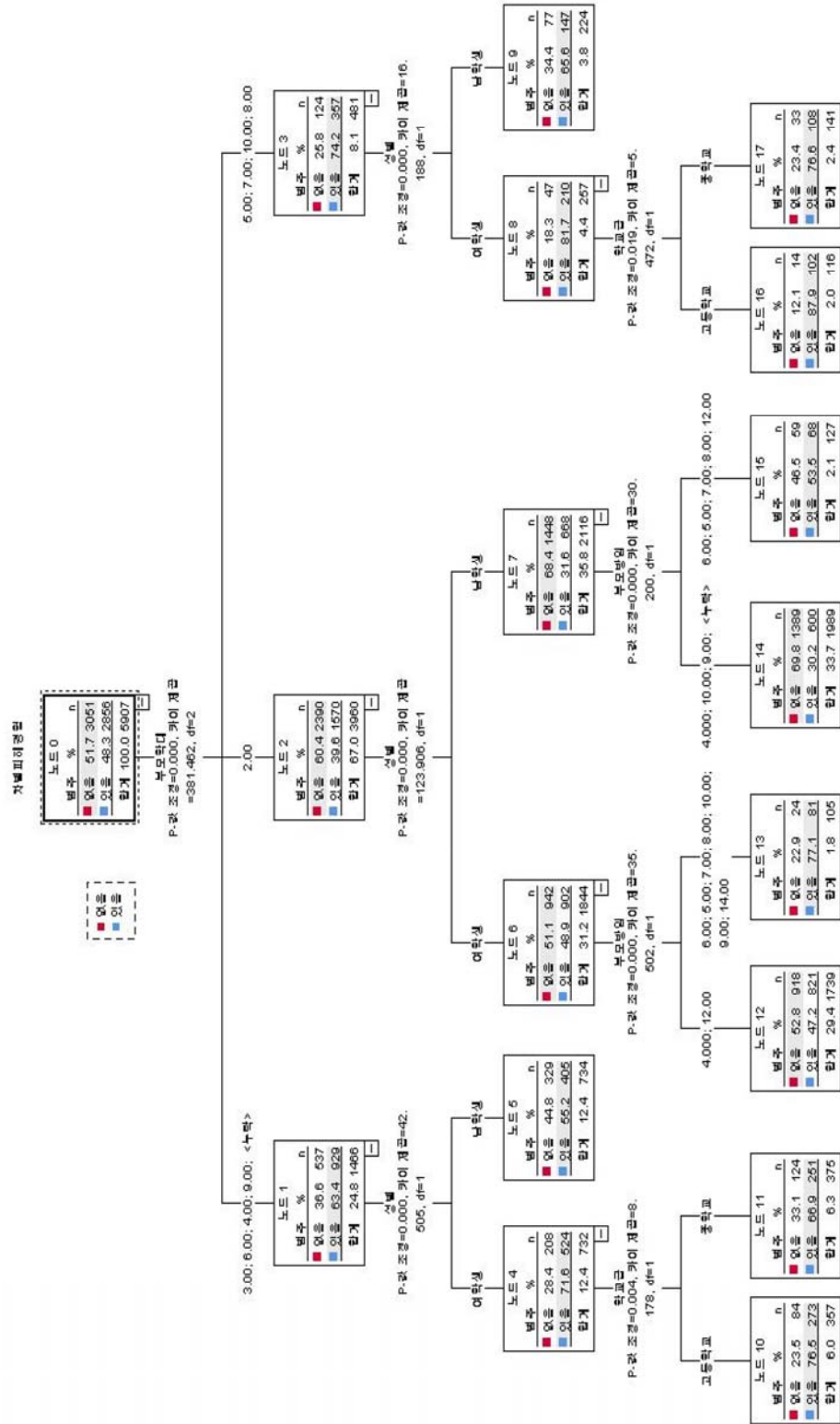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 차별피해 경험 예측요인 탐색

2.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 예측요인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아무런 예측요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별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전체의 20.8%(노드0)이었다. 성별, 학교급, 학년, 지역규모, 가족유형, 학업성적,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차별가해 경험 예측요인으로 투입되었을 때,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은 차별피해 경험(차별당한 경험)이었고, 다음으로 학업성적, 성별, 학교급 및 경제적 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차별가해 경험이 55.9%(노드6)로 가장 증가하였다. 차별피해 경험이 13~15점 사이인 경우(48.7%), 학업성적이 상에 속한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이 61.4%(노드16)로 증가하였고, 학업성적이 중/하일지라도(43.8%) 경제적 수준이 상에 속한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이 50.9%(노드27)로 증가하였다. 또한, 차별피해 경험이 12~13점인 경우(39%), 학업성적이 중/상이면서 중학생인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이 51%(노드26)로 증가하였다.

한편, 차별피해 경험이 11~12점의 경우(32.5%)(노드3), 여학생은 차별가해 경험이 감소한 반면(27.8%)(노드11), 남학생에게서 차별가해 경험이 좀 더 증가하였는데(39.2%)(노드12), 이때 학업성적이 낮을 때 차별가해 경험은 49.5%로 증가하였다(노드23).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상에 속할 때 차별가해 경험이 40.2%로 증가하였다(노드22).

종합해보면, 차별가해 경험은 차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때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차별가해 경험은 증가하였고, 학업성적이 낮더라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차별가해 경험이 증가하였다. 학업성적이 중간 이상일 때 차별가해 경험은 중학교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여학생은 학업성적이 높을 때, 남학생은 학업성적이 낮을 때 차별가해 경험이 조금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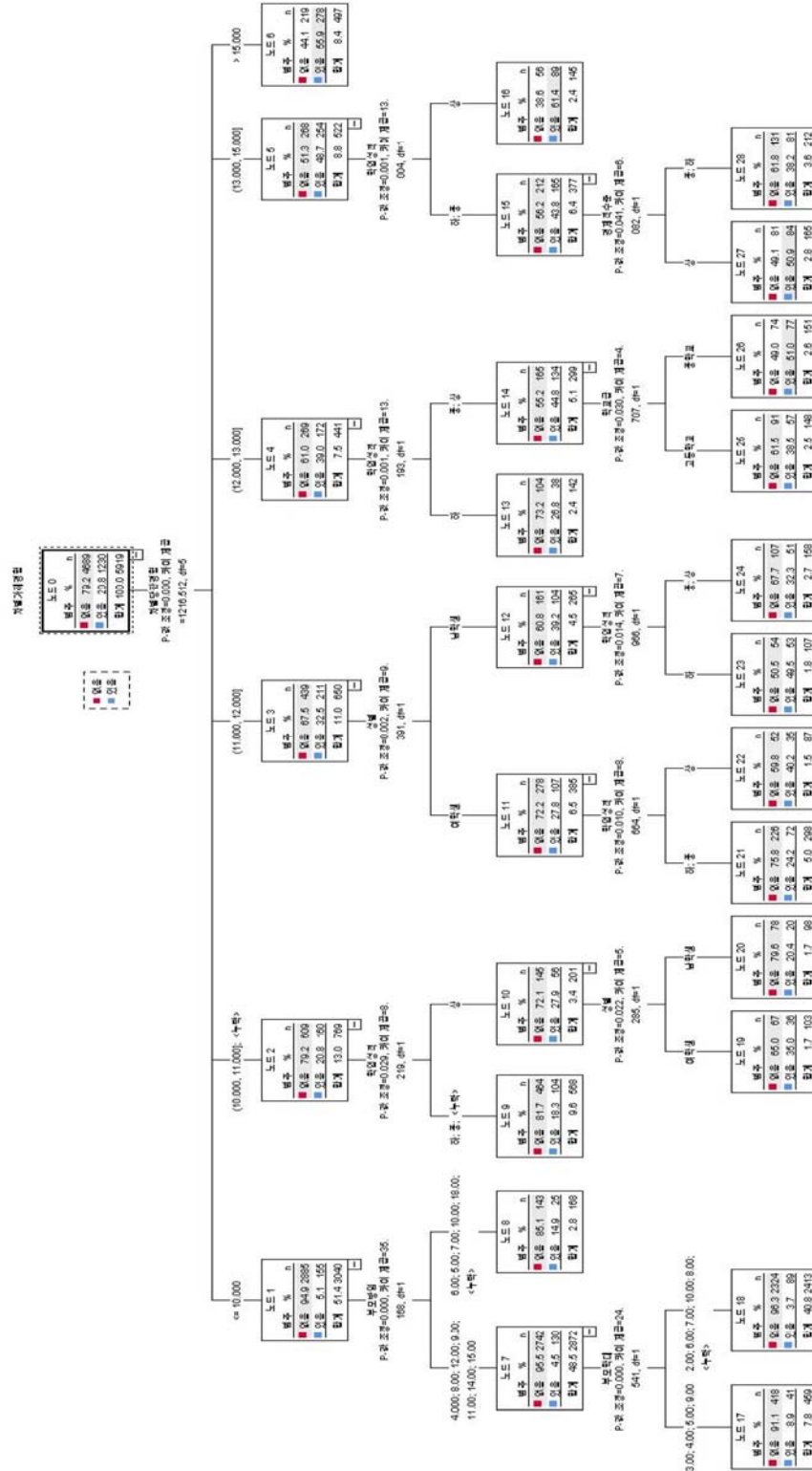


그림 2. 청소년 차별가해 경험 예측요인 탐색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예측함으로써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감소하기 위한 실질적 접근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차별 경험 예측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을 가장 높게 예측하는 요인은 부모학대였고, 다음으로 성별과 학교급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로부터 신체적 벌을 많이 받거나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었다고 지각할수록 차별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는 차별피해 경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김혜원, 조혜영, 2021)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심각한 결핍을 갖게 되고 공격성이나 적대감과 같은 외현적 행동 특성을 나타낼 위험률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는 비행 행동과 같은, 적절하지 못한 대처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Topitzes, Mersky, & Reynolds, 2011)과 학대 피해 경험은 폭력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보고(담음, 방명애, 권보미, 2016; 박은주, 최말옥, 2014; Salzinger, Feldman, Hammer, & Rosario, 1993)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여학생이면서 고등학생인 경우 더 많은 차별피해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성차별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상급학교에 다니는 학생일수록 나이로 인한 차별피해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승경 외, 2016)를 지지한다. 또한, 10대 청소년 4명 중 1명이 차별의 원인으로 성별을 꼽은 것으로 나타난 조사(김세진, 2020.08.11.)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즉 부모방임을 경험하게 되면 차별피해를 더 많이 겪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부모방임을 경험하게 되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우울을 높여 차별피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결과(김혜원, 조혜영, 2021)를 지지한다. 이러한 점에서 청소년이 어떠한 차별피해 경험하는지 살펴볼 때 특히 여학생의 차별피해 경험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llport(1979)는 부모의 양육방식에 대한 교육적 개입을 통해 차별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청소년의 차별 실태에 대한 인식을 우선으로 하되 가정이나 학교 등 청소년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함께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차별가해 경험은 무엇보다 차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경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김술, 김명근, 2021; 김혜원, 조혜영, 2021; 박지수, 한운선, 2018; 아영아, 정원철, 2014; 오세

현, 강현아, 2018; 차유정, 황의갑, 2017; 천정웅, 2015; 홍기혜, 2019)와 일치한다. 이는 차별 피해와 가해가 중첩됨을 확인함으로써, 차별가해 경험에 차별피해 경험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하고 있다. 차별은 청소년에게 명백한 폭력 행위이기에 무엇보다 청소년이 어떤 차별피해 경험을 입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적절히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피해 경험이 가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관찰과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때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차별가해 경험은 증가하였고, 학업성적이 낮더라도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경우 차별가해 경험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 학업성취로 인한 차별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진다는 보고(김솔, 김정근, 2021)를 지지하며,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더 자주 성적으로 인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김승경 외, 2016)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 이는 또한 학업적 성취를 위해 외부의 압박에 많이 시달릴수록, 또는 학업적 성취를 위해 치렀던 비용이나 대가가 클수록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 감각이 무뎠을 수 있음을 내포한다(박봉규, 2011). 사실 우리 사회는 학업적 성취에 오랫동안 치중한 나머지 학생의 인성이 피해를지는 현상을 막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지금부터라도 학교는 인지적 성취에만 매몰된 것에서 벗어나 참된 인성과 인권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돌려야 할 것이다.

또한, 학업성적이 중·상일 때 차별가해 경험은 중학교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여학생은 학업성적이 높을 때, 남학생은 학업성적이 낮을 때 차별가해 경험이 조금 더 증가하였다. 이 경우는 차별가해 경험이 있기는 하나 그리 높지 않은 경우로 그리 많지 않은 가해 사례일 수 있으나, 중학생의 가해경험이 높다는 점은 본 연구조사의 응답자가 재학 중 청소년인 점을 고려할 때 아마도 차별 대상이 자신의 또래집단일 가능성이 큼을 내포한다. 이는 청소년이 주로 자신에게 차별을 가하는 대상으로 친구를 가장 많이 뽑은 조사 결과(김세진, 2020.08.11.)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차별피해를 경험한 경우 다시 차별가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는데, 학교라는 환경 속에서 함께 생활하는 또래친구에게 이를 가할 가능성이 크기에 이러한 연결의 고리를 끊을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천적 시사점을 모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차별이 초래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란 쉽지 않다. 차별은 과거의 전통적 관행이나 사회적 역할 행동, 차별적 법이나 제재 등으로 인해 계속되고 있고, 현대에 이르러 차별이 많이 완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방식 변화나 교육적 개입을 통해 차별의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Allport, 1979)과 폭력은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차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킴과 동시에 학대나 방임과 같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면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실천 가능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차별피해 경험을 가진 청소년

년을 위한 개입이 무엇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차별을 경험한 청소년이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차별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자신의 차별피해 사실을 은폐하려는 성향이 많고(김승경 외, 2016), 간혹 친구에게 털어놓거나 가족과 상의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상당수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누군가와 의논하거나 도움조차 요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진, 2020.08.11.). 이는 피해 청소년이 제한된 실질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증진할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차별은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나 학생을 비롯하여 학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차별 경험에 대한 대처 교육의 시행이나 심리정서적 폭력에 대응하는 심리상담 실시, 궁극적인 차별예방교육 등을 통해 청소년이 차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최근 차별 경험과 관련하여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에 의하면, 인권교육이 청소년 차별 경험을 감소시키며(정규형, 2016), 차별피해로 인한 부정적 정서를 다뤄줌으로써 차별가해 행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차유정, 황의갑, 2017),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해소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차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셋째, 청소년을 비롯하여 현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은 차별이 부당하다는 것은 알지만 정작 본인이 차별을 당한다 해도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한다면, 성장하는 청소년이 차별에 적절하게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여 알려준다면 이들을 통해 향후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차별 문제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차별을 방관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의 환경적 결과라면 이를 적절히 대응하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일 것이다. 성별이나 학업성취로 인한 차별적 행위를 관행이나 통상적인 훈육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함께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중매체나 교육을 통해 인식을 변화시킴과 동시에 관련된 법령을 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등 차별문제 개선을 위한 다방면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탐색하여, 차별 경험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횡단 연구로 중·고등학생의 차별 경험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추후 이를 보완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차별 경험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차별 경험이 있고 없음으로 재코딩하여 살펴보았을 뿐, 이들이 어떤 경험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다. 이에 청소년의 차별 가·피해 경험과 관련된 질적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차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양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길은배 · 이미리. (2007).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기 가정에서의 인권침해 경험 차이.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지』, 5(4), 3-10.
- 김경준 · 김희진 · 이민희 · 김윤나. (2014). 한국 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김균희 · 공수연 (2020).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차별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교육문화연구』, 26(3), 691-706 ·
- 김세진 (2020.08.11.). 청소년 25%, “사회 속 ‘성 차별’ 가장 많아”
<http://www.datasom.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05>
- 김술 · 김명근 (2021). 한국 청소년의 차별 가해 예측요인: 학업성취와 차별 가해 경험 간 관계를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31(3), 59-87.
- 김승경 · 최정원 · 강지명 (2016). 청소년 차별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 16-R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용희 · 엄명용 (2018). 청소년의 차별경험, 스트레스, 그리고 행복감 간의 경로분석 연구. 『아동과 권리』, 22(4), 587-610.
- 김준범 · 이진석 (2020). 청소년 인권존중 경험과 교육이 차별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127-152.
- 김중곤 (2020). 차별과 혐오의 뿌리: 부모의 존중이 포용적 사고를 통하여 청소년의 차별가해행위감소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6), 397-418.
- 김혜원 · 조혜영 (2021). 부모의 학대와 방임이 청소년의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 우울, 차별피해경험의 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5, 37-67 ·
- 김희진 (2017). 청소년의 폭력피해경험이 차별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9(3), 187-209.
- 담 음 · 방명애 · 권보미 (2016). 학교폭력 위험성이 있는 청소년의 가해경향과 피해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하위유형. 『특수아동교육연구』, 18(4), 131-150.
- 박봉규 (2011). 인권교육의 방향 탐색: 부모의 양육태도와 고등학생 인권의식 관계분석. 『미국헌법연구』, 22(3), 91-126.
- 박소영 · 정혜원 (2019). 후기 청소년의 취업선호도 변화 및 영향요인 탐색: 잠재전이분석과 의사결정나무분석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30(2), 89-111.
- 박은주 · 최말옥 (2014). 부모의 학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비행경험 및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우울 및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8(4), 219-238.
- 박지수 · 한윤선 (2018). 학교폭력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의 중단관계 검증: 자기회귀교차지연 모형을 통한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1), 1-27 ·
- 송연주 · 강창완 · 이정희 (2022). 의사결정나무를 활용한 대학생 중도탈락 영향 요인 탐색. 『인문사회』, 13(5), 2401-2415.
- 손인서 · 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 송인한 · 권세원 · 정은혜 (2011).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199-223.
- 아영아 · 정원철 (2014). 보호관찰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정신건강 및 학교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33, 81-108.
- 오미옥 · 이진향 (2018).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차별가해경험: 인권의식의 조절효과.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8(8), 494-502.
- 오세현 · 강현아 (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 · 아동의 차별 피해 경험이 차별 가해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아동과 권리』, 22(4), 611-637.
- 오정아 · 오혜섭 (2018).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결정 예측모형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9(1), 145-177.
- 임희진 · 유제민 (2007). 청소년 진로상황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호요인 및 위험요인의 탐색(연구보고서 07-R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규형 (2016).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이 차별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인권교육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55), 31-55.
- 정영순 · 전종설 (2010). 결혼이민자가정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분석: 부모방임, 또래관계, 차별경험, 우울. 가족과 문화. 『한국가족학회』, 22(3), 73-96.
- 정은아 · 백진아 (2023). 청소년의 차별피해경험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만족도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265-289.
- 차유정 · 황의갑 (2017). 차별과 학대경험이 차별가해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감정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3(3), 135-154.
- 천정웅 (2015). 청소년 인권의식에 관한 구조분석: 인권존중정도, 인권교육, 차별한 경험, 자존감의 영향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2(4), 1-23.
- 최현주 · 박선영 (2015). 청소년의 차별경험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역할. 『청소년복지연구』, 17(2), 81-105.
- 최홍일 · 정윤미 (2020). LCA를 이용한 아동 청소년의 차별경험 집단유형과 유형 간 차이 분석: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9, 83-102.
- 한규석 (2013).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홍기혜 (2019). 청소년에게 인지되는 차별피해가 차별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 차별목격과 차별감수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7(1), 33-66.
- 홍성희 (2023). 청소년이 지각한 차별피해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부모 및 보호자의 자녀의견 존중 조절효과. 『교정복지연구』, 82, 93-120.
- Akers, R. L., Krohn, M. D., Lanza-Kaduce, L., & Radosevich, M. (1995). *Social Learning and Deviant Behavior: A Specific Test of General Theory*. In *Contemporary Masters in Criminology*(pp. 187-214). Springer.
- Allport, G. W. (1979). *The nature of prejudice*. Reading, MA: Addison-Wesley.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Dhont, K., A. Roets, & A. Van Hiel. (201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need for closure underlies the transmission of authoritarianism and anti-immigrant prejudi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4(6), 779-784.

- Gee, G. C., K. M. Walsemann, & E. Brondolo(2012). A life course perspective on how racism may be related to health inequities.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102(5), 967-974.
- Levin, Jack & W. C. Levin. (1982). *The Functions of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New York: Harper & Row.
- Salzinger, S., Feldman, R. S., Hammer, M., & Rosario, M. (1993). The effects of physical abuse on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4(1), 169-187.
- Topitzes, J., Mersky, J. P., and Reynolds, A. J. (2011). Child maltreatment and offending behavior.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8(5), 492-510.

투고일자 : 2023. 12. 04

수정일자 : 2023. 12. 27

게재일자 : 2023. 12. 31

<국문초록>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차별 경험 예측모형 탐색

송 연 주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청소년의 차별 경험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0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생산한 국내 중·고등학생 5,74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이들의 차별피해 및 차별가해 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부모학대, 성별, 학교급 순으로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 신체적 체벌이나 모욕적인 말을 많이 들을수록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은 증가하였는데, 여학생이면서 고등학생일수록 피해 경험은 더욱 증가하였다. 둘째, 차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차별가해 경험이 증가하였는데,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학업성적이 높지 않더라도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차별가해 경험은 증가하였다. 이로서 청소년의 차별피해 경험이 차별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제언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차별피해, 차별가해, 의사결정나무분석, 청소년